

성명	이완희
----	-----

■ 입후보자 소감

존경하는 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 교수님

코로나 19의 열악한 대학 교육 현장에서 물리치료 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습 성과에 기반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여 명실공히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지식과 기술, 가치관을 겸비한 유능한 물리치료사를 배출하기 위하여 교육 주체이며 최고의 지성인인 교수님들의 절대적인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학교 교육과 임상 현장의 괴리,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부재, 지역간 교육 격차, 학제 단일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산적한 문제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실천 현장에서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면과 비대면의 불완전한 교육 환경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중대성에 비추어 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회가 한국 사회에서 최고의 명품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19대 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 회장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물리치료의 선진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그리고 물리치료 학문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치료 학제일원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당면과제로 인식하여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39개 3년제 대학 물리치료학과가 개설된 대학 중 31개교를 방문하여 총장 및 처장들과 면담하여 학제일원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하였고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추후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안 발의 및 행정적 절차에 많은 교수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제19대 협의회장에 당선되면 학제일원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임기 내 법안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그간 우리 교수님들은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치열하게 단합하며 절절한 목소리를 동시에 발산한 경우가 가히 드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학벌 위주의 냉엄한 현실속에서 질 높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최고의 전문 물리치료사를 양성해야 하는 책임은 저희에게 주어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무한의 책무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학제일원화를 수수방관 할 수도 내팽개 칠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숙원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2년의 임기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학제일원화는 비단 3년제 교수님들만의 관심과 호응이 되어서는 안되며 전국 물리치료학과 모든 교수님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제일원화는 한국사회에서 의료 전문가로서 물리치료사의 사회적 지위를 굳건히 하는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제19대 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회장으로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입후보자 공약

-4대 핵심 공약 -

1. 학제일원화 법안 발의
2. 물리치료학의 학문적 질적 제고와 정체성 확립
3.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강화
4. 국가고시 시험 과목 명칭 변경

- 4대 핵심 공약에 따른 실천 공약 -

1. 전 회원의 분과위원회
2. 물리치료학의 선진화 구축 및 정체성 확립
3. 물리치료학 교과목 지침서 발간
4. 일본 물리치료교육학회 및 협의회와 교류 착수
5. 국가고시 과목 명칭 변경
6. 우수연구자상 / 우수 도서 선정
7. 공정한 국가고시위원 선발
8. 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 발주 연구 과제 공모
9. 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 다이제스트 발간
10. 발전기금 모금 상설화
11. 연구년 교수 방문 보고회 개최
12. 지역간 학력차이 극복 방안 모색
13. 권역별 지역 학술제
14. 물리치료학 세부전공 정착-전문성 강화
15.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교육 사업 이관
16. 협의회 임원의 사회봉사 상시화
17. 회원 교수간 교류 확대 방안 제고
18. 각 대학 당면 과제 협의회 통한 중재
19. 전국 물리치료사 학력 신장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방안 및 제도 마련
20. 협회 업무 대행 서비스 체계 구축

■ 동영상에 있는 경우 링크 첨부 (youtube에 업로드후 링크제출)

--